

조선산업



양안관계 악화에도 대만 선사 다시 중국 조선소로 방향 전환

산업분석

2025. 10. 23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에버그린, 광저우 조선과 삼성에 컨테이너선 발주

대만의 메이저 컨테이너 선사 에버그린이 중국 광저우 조선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7척의 1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중국과 대만간 국가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계약은 전량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를 다시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메이저 화주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조선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에버그린 선사가 보여준 것이다. 또한 중국 은행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선박금융 조건과 향상되고 있는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 생산성은 선주들로 하여금 무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7척의 수주를 가져갔지만 중국 조선소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여주지는 못한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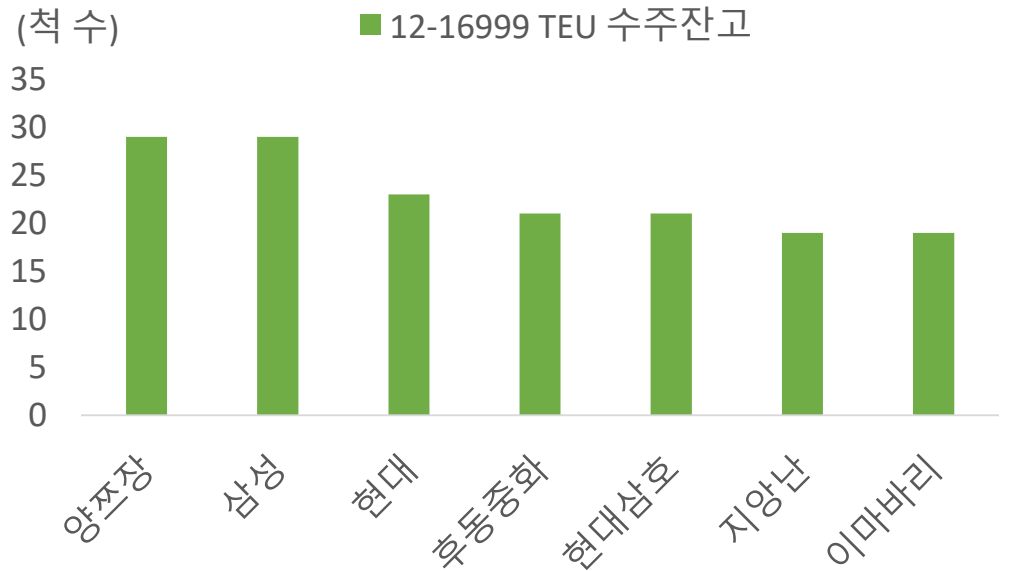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14000TEU급 수주잔고 1위로 도약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계약을 포함해 12-16999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는 29척으로 늘어나 양쯔장 조선과 가장 많은 수주잔고를 갖게 되었다. 한국 조선소들은 14000TEU급에서만 선박 수주계약을 집중하고 있어 17000TEU급 이상과 1만TEU급 미만 피더 선박분야서는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잔량을 사실상 완전히 잠식했다.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230척의 12-16999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88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고 중국은 53%에 해당되는 123척의 수주잔량을 갖고 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는 19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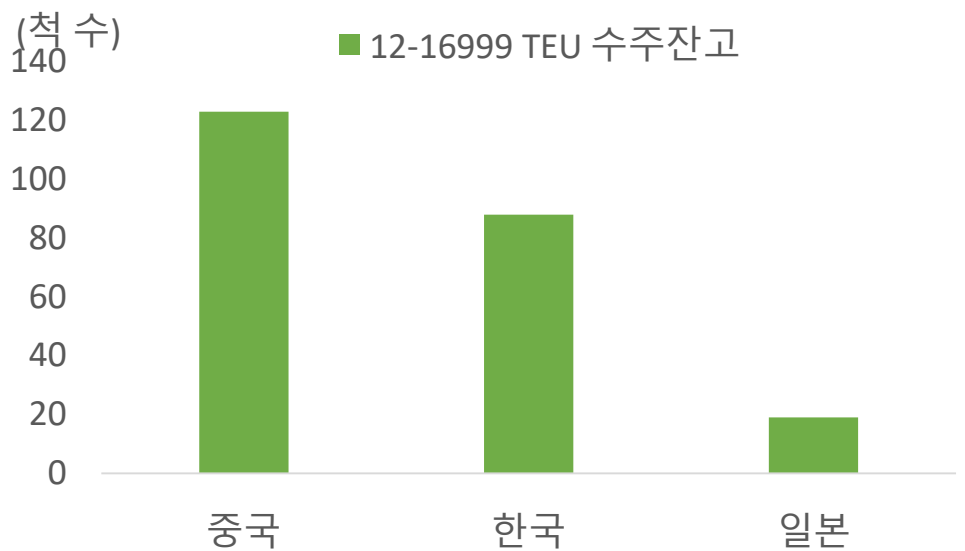
양안 관계 악화로 양밍, 에버그린 등 대만 선사들이 잇따라 한국 조선소에 선박 주문을 늘렸지만 에버그린이 다시 중국 조선소에 선박 주문을 늘린 것은 중국 조선소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한국의 선박 인도량은 정체,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도량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선주들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1] 조선소별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12-16999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